길상천상

　길상천은 ‘공덕천’ 또는 ‘길상천녀’로 불리는 여신으로, 풍작, 행복, 부, 아름다움, 공덕의 신입니다. 힌두교의 여신 락슈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길상천에 대한 일본의 신앙은 나라 시대(710-794)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길상천상은 당나라(618-907)의 아름다운 궁녀로서 여신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자수가 새겨진 가운을 입고 머리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소원을 들어주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며, 고난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알려진 보주를 들고 있습니다. 손에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같은 여신인 변재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 세기에 제작된 높이 215cm 의 목상으로, 이 시대의 조각상에서는 보기 드문 본래의 색으로 보이는 흔적이 확연하게 남아 있습니다.